

한화 김태균, 전격 '은퇴 선언'

은퇴식 내년에...내년부터 단장 보좌 역할

“후배들에게 많은 기회 주고자 은퇴 결정”

한화 이글스의 대표 프랜차이즈 스타인 김태균(38)이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한화 구단은 21일 “김태균이 은퇴를 결심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는 최근 구단에 은퇴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김태균은 구단을 통해 “우리 팀에는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후배들이 성장하고 있다.

후배들에게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은퇴를 결정했다”고 은퇴를 결심한 이유를 전했다.

이어 “구단과 팬 여러분이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하지만 우리 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내가 은퇴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태균은 내년 시즌부터 스페셜 어시스턴트를 맡아 팀 내 주요 전력 관련 회의와 해외 훈련 등에 참가, 단장 보좌 어드바이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화는 “구단과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환원하고 싶다는 김태균의 의사를 반영해 내년 시즌 스페셜 어시스턴트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화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시즌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김태균의 은퇴식을 내년엔 진행하기로 했다.

김태균은 22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은퇴 기자회견을 열고 은퇴를 결심한 이유와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북일고를 졸업하고 2001년 한화에 입단한 김태균은 2010~2011년 일본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에서 뛰던 기간을 제외하고 18시즌을 한화에서만 활약했다.

김태균은 입단 첫 해인 2001년 타율 0.335 20홈런 54타점 51득점의 성적을 거두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그는 콘택트 능력과 장타력을 고루 과시하며 2003~2005년 3년 연속 타율 3할 이상과 20홈런 이상을 기록, 리그 정상급 타자로 올라섰다.

김태균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프로야구에서 10시즌 연속 3할 이상의 타율을 거뒀다.

뛰어난 선구안까지 갖춘 김태균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4할대 출루율을 기록했다.

또한 일본 생활을 마친 뒤 복귀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연속 4할 이상의 출루율을 올렸다.

2019시즌을 마친 뒤 자유계약선수(FA)가 된 김태균은 한화와 1년 계약을 맺고 ‘배수의 진’을 쳤다.

한화는 2년 계약을 제시했지만, 김태균은 1년이 지난 뒤 재평가를 받겠다고 1년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구단에 전달했다.

절치부심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김태균은 올 시즌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며 67경기에서 타율 0.219에 그쳤다.

지난 8월 중순 팔꿈치 부상을 당해 재활군으로 내려간 김태균은 회복이 더디 시즌 내 복귀가 힘들어지자 은퇴를 결심했다.

통산 2014경기에 출전한 김태균은 통산 타율 0.320 311홈런 1358타점 1024득점에 통산 출루율 0.421, 장타율 0.516의 성적을 남겼다.

역대 통산 안타 부문에서 박용택(LG 트윈스·2504개), 양준혁(은퇴·2318개)에 이어 3위다. 또 통산 최다 루타 부문에서도 3557루타로 4위다.

아울러 그의 통산 출루율 0.421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통산 타율 0.320도 역대 5위다.

한화는 “프랜차이즈 스타의 은퇴에 최고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아홉수 탈출’ 임찬규 “스스로에게 당근 한 조각”

3점대 평균자책점 시즌 마칠 수 있는 가능성 생겨

지긋지긋한 아홉수에서 벗어난 임찬규(28·LG 트윈스)가 자신에게 ‘당근 한 조각’을 주며 사기를 북돋는 생각이다.

임찬규는 20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쏘 KBO리그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7피안타 5탈삼진 2볼넷 2실점을 기록, LG의 7-6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로써 임찬규는 지긋지긋한 아홉수의 굴레에서 벗어나 시즌 10승째(9패)를 수확했다. 2018년 11승(11패)을 거둔 이후 2년 만에 개인 통산 두 번째로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했다.

임찬규가 10승을 거두기까지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임찬규는 지난 9월6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시즌 9승째를 수확한 이후 약 한 달 반 동안 ‘무승’이었다.

그는 시즌 9승 달성 이후 6경기에서 승리없이 4패만을 떠안았다.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경기도 있었으나 승운도 따르지 않았다. 이날 1일 잠실 롯데전(6%이닝 3실점), 7일 잠실 삼성 라이온즈전(7%이닝 1실점), 14일 사직 롯데전(6%이닝 1실점)에서는 내리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3자책점 이하)를 작성하고도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다.

이날도 수 차례 임찬규의 승리가 불발될 위기가 있었다.

6회말 강백호에 적시타를 맞은 임찬규가 2사 1, 2루의 위기를 만들고 마운드를 내려왔는데, 뒤이어 등판한 정우영이 볼넷과 몸에 맞는 공을 연달아 내줬다. LG가 4-2로 쫓긴 가운데 만루 위기가 이어졌다. 단타 하나면 임찬규의 승리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정우영이 문상철을 유격수 땅볼로 잡고 실점을 막았다.

임찬규는 9회말에도 마음을 졸여야 했다. LG 마무리 투수 고우석이 유한준에 2타점 적시 2루타를, 이흥우에 좌월 투런포를 연어맞아 KT의 7-6 추격을 허용했기 때문.

LG가 KT의 추격을 뿌리치고 1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임찬규도 비로소 10승 달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경기 후 9회에 마음을 졸이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은 임찬규는 “(고)우석이 마음 졸이고 일부러 그런 것 같다”고 농담한 뒤 “팀이 이겨서 됐다”며 미소를 지었다.

임찬규는 “9월6일 롯데전에서 시즌 9승째를 따낸 후 다음 경기나 그 다음 경기에서 10승을 달성하고 싶었다. 하지만 부진했다”며 “그 이후로 내려놔더니 투구 내용은 좋아졌다. 점수가 나고, 팀이 이기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내려놔더니 10승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는 LG에게도 중요한 경기였다. 이날 경기 전 LG는 2위였고, 3위 KT와 불과 0.5경기 차였다. 이날 경기를 승리해 2위 자리를 지킨 LG는 앞으로 2위 싸움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임찬규는 “중요하지 않은 경기는 없지만, 오늘 경기는 한층 특별한 마음으로 임했다. 공 하나 던지는데 집중하자는 생각이었”이라며 “그게 잘 된 것 같다”고 만족감을 내비쳤다.

올 시즌 임찬규는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는 것에 인색했다. 칭찬에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임찬규는 이날 하루만큼은 스스로를 칭찬할 참이다. 그는 “스스로 칭찬한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더라. 그랬더니 스스로 수렁에 빠졌다”며 “그래서 칭찬하고 자존감을 높여주시신사 하더라. 나에게 채찍과 당근을 고루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당근 한 조각 정도 주겠다”고 말했다.

임찬규는 10년만 채우면 규정이닝을 달성하게 된다. 또 이날 시즌 평균자책점을 3.97로 끌어내려 3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시즌을 마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

임찬규는 “올 시즌 선발 로테이션을 빠지지 않고 돌았다는 것에 감사하다. 그런데 규정 이닝을 못 채우면 부족해 보인다”며 “3점대 평균자책점도 좋지만, 규정이닝을 일단 채우고 싶다”고 욕심을 드러냈다.

정승호기자

‘세계선수권 다이빙 최초 메달’ 김수지, 올해 첫 대회 1m 스프링 금

김천 전국수영대회, 다이빙여자 일반부 1m 스프링보드 251.45점 우승



한국 다이빙 선수 최초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건 김수지(울산시청)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훈련 부족에도 여전히 기량을 뽐냈다.

김수지는 20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0회 김천 전국수영대회 다이빙 여자 일반부 1m 스프링보드에서 251.45점으로 우승했다.

광주시체육회의 권하림(240.05점)과 정다연(234.05점)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올해 첫 전국수영대회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수영대회가 열리지 못하다가 지난해 10월 전국체전 이후 약 1년 만에 개최됐다.

김수지는 대한수영연맹을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3개월 동안 입수를 못 했다. 경기장에서 잠깐 연습하고 뛰어야 했기에 ‘즐거워’ 생각하고 경기했는데 생각보다 잘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수지는 지난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다이빙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것은 김수지가 최초다.

그는 “지상 훈련이나 웨이트는 꾸준히 해왔지만 아무래도 다이빙을 오랜만에 하니 몸이 조금 아프다”며 “국가대표 선발전 전까지 몸 관리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여자 고등부 플랫폼에서는 김서연(인천체고)이 213.4점으로 우승하며 3m 스프링보드에 이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남자 고등부 3m 스프링보드에서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출신 정동민(인천체고)이 371.25점으로 우승했다.

아티스틱스위밍 여자 고등부 솔로에서는 동광고 3학년 김준희(151.8500점)와 2학년 이가빈(149.3826점)이 1, 2위를 차지했다.

김미희기자

메시, UEFA 챔피언스리그 최초 16시즌 연속 득점포

바르셀로나 5-1 대승 이끌어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최초로 16시즌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다.

메시는 21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 누에서 열린 페렌츠바라시(헝가리)와의 2020~2021 UEFA 챔피언스리

그 G조 조별리그 1차전에 1골 1도움을 올리며 바르셀로나의 5-1 대승을 이끌었다.

0-0으로 팽팽한 전반 27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대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메시는 이번 골로 2005~2006시즌을 시작으로 UEFA 챔피언스리그 최초 16시즌 연속 득점이라는 진기록을 달성했다. 장수생 라이언 깁스도 16시즌 연속 골은 이루지 못했다.

특히 메시는 2008~2009시즌부터

2011~2012시즌부터 네 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다. 2011~2011시즌 기록한 14골은 당시 기준으로 역대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이었다.

이후 2015~2016시즌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16골로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가 한 조에 속해 조별리그 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는 G조 1위로 무난한 출발을 알렸다.

정승호기자

돌아온 골프 황제 우즈 “US오픈 때보다 좋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조조 챔피언십 타이틀 방어 나서



ESPN은 우즈가 지난 20일 대회가 열린 서우드 컨트리클럽에서 9홀 연속 라운드에서 페넬로페 샷을 선보였다고 소개했다.

우즈는 지난해 10월 일본 지바현에서 개최된 이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본이 아닌 미국에서 개최되는 올해 타이틀 방어에 성공할 경우 PGA 투어 최다승인 83승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장소가 10년 넘게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을 주최했던 서우드 컨트리클럽이라는 점도 우즈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다.

우즈는 “나는 수년 간 이 곳에서 잘했다”면서 선전을 다짐했다.

우즈의 모습은 다음 달 마스터스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마스터스 전 주에 치러지는 휴스턴 오픈 출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1997년 데뷔 후 한 번도 마스터스 1주일 전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우즈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변수가 많아 일정을 고민 중이다.

우즈는 “내 계획은 단지 플레이를 하고 연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